골목 소상공인에 '희소식'

군산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18일 정식 개장

군산시가 골목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오는 18일 정식 개장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군산 조촌동 213에 위치한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신축에 따라 오는 18일 오후 2시 시가 주최하고 전북군산수퍼조합 주관으로 개장식을 갖는다.

이날 개장식은 강임준 시장을 비롯해 김영일 시의회 의장, 이훈구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관련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물류센터 신축과 조합 이전 운영을 축하하고 원활한 센터 운영을 염원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물류센터는 지난 6월 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으며, 개장식 일정에 맞춰 야채·청과 등 1차 상품을 포함한 1만 6천여개의 품목을 본격 취급할 예정이다.

골목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많은 이용객들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장식 이후에는 저렴한 공급단가가 소비자 물가 인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조합, 소비자단체 간 상생협약을 맺고, 소매가격 상한제, 시즌별 공동세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심물가제를 시행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받는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정식 개장이 되면 골목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공급단가 인하가 소비자 판매 가격 인하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19년 1월부터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4,978㎡, 건축면적 4,978㎡ 규모로 2021년 12월에 착공해 2023년 5월 준공하고 지난 6월 5일부터 운영을 해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부실공사 원천차단 '통' 했다

정헌율 시장, 공동주택 건설현장 선제적 구조안전점검 긴급 지시… 현장 14곳 검검 결과

정헌율 익산시장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선제적 구조안전점검 지시가 부실시공 원천차단 효과로 통했다.

정 시장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지난 5월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14곳을 대상으로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긴급지시했다.

시는 구조안전 점검결과, 14개소 모든 현장에서 '이상없음'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해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이후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했고, 이번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건 이후 발 빠르게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해 시민 불안을 해소시켰다.

이어 정 시장은 지난달 16일에 직접 마동 자이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공사추진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여부, 안전기준 준수, 주변 지반현황, 인근시설물 안전상태 등을 확인하며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마동자이아파트는 GS건설 자체적으로 지난 달 건축구조학회에서 선정한 정밀안전진단업체에 구조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선제적 구조안전점검 지시가 부실시공 원천차단 효과로 통했다.

이달 말경 건축구조학회 자문회의 심사 후 최종보고서 작성 예정으로 추후 안전점검 결과를 GS건설에서 입주예정자대표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점검반을 꾸려 지속적으로 수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시 시공 및 감리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해 철저하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시공 중인 공동주택 단지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물류·도·소매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이종현 익산시의회 의원,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경호)는 11일 제252회 임시회 중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이종현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이 발의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간 기업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 도·소매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에 물류 및 도·소매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현 의원은 "기업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지방세수 확충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지역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가결로 물류 및 도소매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익산시가 코스트코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한동연 익산시의회 의원 발의… 소하천 오염원 유입 예방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어양동)은 11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소하천에 대한 선제적인 수질 보호와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익산시 소하천의 수질오염 유발 및 주변 생태환경을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능동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소하천 명예감시원'을 구성하여 생태 소하천 보전과 진흥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위촉기준, 임무, 활동비 등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하천 명예감시원은 깨끗한 소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 활동과 소하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 의원은 "소하천 명예감시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면 익산시 소하천의 관리·보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염원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마음껏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유도… 사고 감소 효과기대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 반납 시 교통비를 매년 20만 원씩 2년간 총 4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재구 의원(동산동, 영등1동)은 11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례는 면허반납 시 20만원을 1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20만원씩 2년간 총 4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사고 건수는 많지 않지만 치사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아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려면 교통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령운전자의 안타까운 사고를 보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에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껴 발의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여름방학 중 취약계층 아동 급식 지원

익산시는 아동들의 결식 방지를 위해 여름방학 중 취학계층 아동 1556명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1일 익산시청 2층 회의실에서 상반기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신혜경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아동급식위원 9명이 참석해 현재 아동급식을 지원 받고 있는 1556명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원 여부와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아동급식이 필요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심의하고 아동 급식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도 이뤄졌다.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아동급식은 읍·면·동 및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며 적정여부를 심의한다.

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5G서비스 시행

군산시는 모든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 통신으로 전환해 고속통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기존 LTE 기반의 장비에서 5G 장비로 교체했다. 이로 인해 밀집 환경에서 고속 사용이 가능토록 서비스 속도를 3배로 개선해 고용량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스마트 폰에서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에서 'Public WiFi Free' 또는 'Public WiFi Secure'를 선택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는 등 농어촌 마을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